

인구 감소에 돈줄도 말라 전남도 재정 4천억 '핑크'

2023년부터 ...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끝나

지방 살리기 차원 영구보전
재정분권 정책 보완 나서야

2년 뒤인 2023년부터 전남도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4000억원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사실상 '재정 절벽'이 발생하면서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소멸위험에 돈줄마저 마를 위기에 처한 전남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2019-2020) 시행으로 2023년부터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균형특별회계)에 대한 3년 한시 보전이 완료됨에 따라 4000억원의 국고 지원 예산이 사라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고보조를 받아 시행했던 농어업기반 정비, 상수도 시설, 지방하천 정비 등의 사업에 대한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쇠락 역사가 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1단계는 ▲지방 소비세 10%p 인상(부가가치세 11%에서 21%로 인상) ▲국가보조사업(균등) 지방이양(재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보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이 3.2조원 증액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전남도는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 한시보전이 끝난 뒤인 2023년에는 4000억원의 지원이 중단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1년 전남도의 국비 지원 규모가 7조667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5.2%가 감소한 셈이다.

전남도의 자체 분석에서는 재정분권 1단계로 농어촌지역인 도(道)는 국비 지원이 감소한 반면 광역시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400억원을 시작으로 부산 1900억원, 대구 1400억원, 광주 1100억원 등이 증액되지만, 전남 4000억원을 최고로 전북 2100억원, 경북 1600억원, 충남 1100억원 등이 감액된다는 것이다. 재정분권의 과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 미보전은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도(道) 지역은 이양사업만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역시 불합리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자원 점유율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중국에는 재정 격차만 심화시킬 것으로 전남도는 진단했다.

전남도는 재정분권 1단계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재원을 함께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지방분권법 등의 규정을 위배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뒤 재정분권 2단계(2021-2022)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의 영구 보전부터 정부가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중인 재정분권 2단계의 안으로는 ▲지방소비세 7%p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분권 추진 시 어느 지역도 현 지방 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무엇보다 지방이양사업 재원을 영구 보전하는 등 1단계 문제점 보완을 포함한 재정분권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반 이재명 구도는 민심과 맞지 않다"

추미에 대선 후보 광주서 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사진) 후보는 14일 "이재명 대 반(反) 이재명 구도는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 공학"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3면> 추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 이재명 구도는 민심과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기회가 경선인데, 반 이재명 구도는 경선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후보들의 장점과 비전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면서 반 이재명 전선에 선을 그었다.

아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한 사람이니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깊이가 없고 검찰 개혁에 맞서거나 저항했다"고 밝혔다.



보시면 지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광주-전남 대선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한빛재단소 광주 유치, 호남형 메가시티 구축,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한전공대 육성, 전남 우주산업 메카 육성, 국제적인 섬 휴양 관광벨트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4일 오후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관내 한 목욕장에서 강화된 수칙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광주·전남 4차 대유행 우려

수도권 여행객 등 속속 감염
완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여수도 격상 여부 검토

광주시와 전남도가 수도권발 코로나19 차단에 집중하고 있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광주에선 아동복지시설과 콜센터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선 최근 금일도 15명 무더기 감염에 이어, 공무원 한명이 추가 확진된 완도군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여수시의 경우 조기 방학·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7명, 타 시도 확진자 관련 1명, 기존 지역 감염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2명 등 모두 11명(누적 3073명)이 신규로 확진됐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지난 13일 유증상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소자와 종사자 102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시설에서만 이틀간 7명이 확진됐으며 종사자의 지인 1명도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8

명이다. 또 이날 확진자 중 2명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돼 검사 대상이 늘어났다. 방역 당국은 2개 콜센터에서 동료, 접촉자 등 각각 170명, 150명을 검사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유사한 시설 이용자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13개 아동양육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806명, 34개 공동생활가정 277명 등 1083명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대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늘리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145만6121명) 중 43만9012명(30.1%)을 기록하는 등 30%를 넘어섰다.

전남에서는 여수를 중심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나흘동안 전남에선 5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3명이 여수에 집중됐다. 확진자에는

타지역에서 온 여행객, 고교 2곳 학생 3명과 여수 시 공무원, 횡집 주인, 종사자 등이 포함됐으며, 수도권 등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도 5명이 포함됐다.

완도에선 지난 13일 완도해조류박람회 사무국 직원이 확진돼 공무원 20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금일도 무더기 감염 사태에 이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군은 15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나주에서도 14일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나와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나주 신규 확진자에는 서울에서 농작물 재해 현장을 조사하러 온 보험사 관계자, 시 소속 미화원 등이 포함됐다. 여수에서여수 6명, 나주 4명, 순천 1명, 광양 1명 등 모두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14일 나오면서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756명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방관이 부른 비극 학폭...실질 대책 마련을 ▶6면

프로야구 중단이 아쉬운 김호영·권혁경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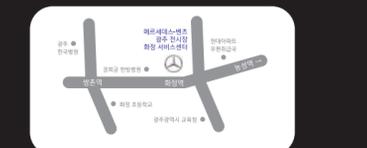
신발도명물 - 입에서 살살 녹는 제주 한치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EQA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호남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봉대로 1041(화정동)
MB 인공물고지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동대로 516(수환동)
호남 서비스센터 (062)742-720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흥대교로 603번길 20(소촌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761-009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로 520(수환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충전량
EQA 250 4M 복합 연비(소모효율) 4.1 [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306, 공차중량(kg) : 1995, 배터리 용량(kWh) : 66.5
※ 본 연비는 표준도로에 의한 면허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